

- 지 면 안 내
- 02 2학기 가을축제 '현무제', 그 평가는?
 - 03 우리대학 출판부 알아보기
 - 04 신빈근총 '청년 워킹푸어'의 현실
 - 05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된 궁정발레의 시작
 - 08 솔직한 독립영화의 특별한 매력



청년들은 미래를 꿈꾸어야 한다

청년채용은 강제되어야 한다. 청년 워킹푸어에 관한 취재를 하며 내린 유일한 결론이다. '워킹푸어'란 단어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임시직, 비정규직, 청년실업과 같은 단어들의 총칭일 뿐이다.

기준에 실행해오던 청년실업자에게 교육과 훈련의 의무를 부여해 개인의 고용가능성을 높이는 '학습을 통한 복지(Learnfare)' 정책은 현 상황에서 너무나 소극적인 대안이다. 청년인턴제만 봐도 젊은이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노동력에만 단물만 빼먹고 빨아낸 정책에 불과했다. 정규직에 막대한 대학생들에게 이상향만 보여줄 뿐 실제 갈증을 채워주지 않는 것이다. 한 취재원은 "취직은 좋지만 마지막에 정규직으로 채용되지 않으면 박봉으로 부러진 것에 불과한 것 아닌가"고 씁쓸하게 말했다.

이런 사회에서 실업을 개인의 능력부족 탓으로 돌리는 건 거성시대의 폭력에 가깝다. 실업은 사회의 공동 책임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건 과감한 마인드의 정부와 기업이다. 이쯤되면 90년대 말 최악의 경제난과 청년실업의 상황에서 '청년의무고용제'를 과감히 실시한 벨기에처럼 말이다. 적극적인 청년실업 해결책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수십가지 의무고용 관련 정책을 운영 중이다'며 눈을 감고 귀를 막는 기업들도 문제가 심각하다. 실제 의무고용 관련 정책은 대부분 형식적인 권고사항일 뿐이다. 장애인 의무고용제의 경우 차라리 범칙금을 내고 마는 대다수의 기업들은 대체 무엇일까. 더불어 점점 현실에 순응하며 본인의 순수한 꿈을 접는 젊은이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은 불행한 현실이다.

청년유니온과의 인터뷰 중 "돈이 돈을 낳는 사회에서,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을 가질 수 없다"는 말이 지금까지 머릿속을 맴돈다. 이 말이 현실이 되지 않기 위해 청년채용은 강제되어야 하며 청년들은 자신의 꿈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본인의 일할 권리를 더욱 강력히 주장해야 한다.

이상미 편집국장



▲ 지난 13일, 우리학교 벽화 봉사단이 장수마을에서 벽화 그리기봉사를 하고 있다.

이상철 기자 ercas@hansung.ac.kr

번거로운 야간잔류 신청절차

“세 곳에 신청서 제출해야 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 부각”



▲ 밤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는 도서관의 모습이다.

학생들의 교내 야간잔류 신청과정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는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현재 학생들은 야간에 학교에 남아 각종 활동을 할 때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번거로운 느낌을 이들이 많다. 이는 야간에 과제 작업을 하는 예술대 학생들에게는 특히나 개선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김보미(회화 4)학생은 "시험기간이나 학기 말 과제전을 준비할 때 항상 많은 학생이 남는다. 바쁜 와중에 매번 도장을 찍어 청의관(학생지원팀)과 진리관(시설지원팀), 공학관(경비실)을 오가는 점이 다소 불편하다. 미리 신청하지 않으면 밤·난방이 안 되기 때문에 꼭 해야 하지만 좀 더 번거롭지 않은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방현경(회화 2)학생은 "신청서를 가져와 청의관과 진리관, 경비실 세 건물에 각각 내는 과정이 복잡하다. 전화나 컴퓨터를 통해 바로 신청이 가능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진실(시각영상 3)학생은 "야간잔류를 할 때 지도교수님에 매번 전화를 해야 하는 게 번거롭다. 미리 신청하면 시설을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겠지만 복잡한 절차가 간소화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양승찬(공학관·지선관 안내실 근무)씨는 "오후 11시가 되면 학교 문을 잠그기 위해 순찰을 하는데 시험이나 과제로 밤새 학교에 남아 작업

하는 학생들을 본다. 적게는 한 둘이지만 많으면 20~30명. 강의실 10개 정도가 불이 켜져 있다"고 전했다. 야간잔류 신청을 하지 않고 남는 경우엔 '미허가 잔류학생 현황'을 통해 인원을 파악하지만 밤·난방 시설 이용이 불가능하다.

이정민(무용 3)학생은 "절차가 복잡하다고 보단 챙기기 번거롭다. 전공 특성상 품의 상태에 따라 연습량이 다르고 끝나는 시간도 일정하지 않은데 야간잔류 신청, 봉급시간 등을 생각하면 연습할 때도 마음이 조급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학교 무용과의 홀 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그러나 야간잔류 신청을 미리 하지 않으면 홀을 사용할 수 없으니 새벽에 갑자기 연습하고 싶을 때 자유롭게 와서 춤을 추기 힘들다. 외부 홀을 빌려 사용할 때면 아쉽다"고 전했다.

현재 야간잔류는 반드시 5인 이상만 신청이 가능하며 사본을 해당하는 건물 경비실과 시설지원팀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는 안전사고 예방 차원과 동시에 남겨진 불미스러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야간잔류신청을 받는 학생지원팀에서는 "일정한 절차를 거치며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부각시키기 위함"이라 전했다. 실제로 동아리방 등에 전열기구를 켜놓은 채 문이 잠긴 상황이 종종 있어왔다. 야간잔류 신청절차의 간소화에 대해서 학교 측은 "타 학교의 경우, 학과 사무실에서는 학생들이 남는 이유를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학과 지도 하에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 학생들의 상황을 파악하기 쉽기 때문에 이러한 방안을 생각해보았으나 현재까지 추진된 바는 없다"고 전했다.

이상미 기자 sangmi@hansung.ac.kr

2011년도 총선투표, 11월 29일~30일

후보자 등록은 17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가 2011년 총선(총학생회, 야간총학생회, 총여학생회, 총대의원회, 학생복지위원회, 졸업준비위원회)을 발표했다.

모든 단위의 후보자등록 기간은 8일부터 오는 17일 오후 9시이며 유세기간은 18일부터 27일까지, 투표기간은 29일부터 30일까지다. 유세기간 중 정책토론회도 예정돼 있으나 정확한 날짜는 아직 미정이다.

총학생회, 야간총학생회, 총여학생회, 학생복지위원회 정·부학생회장은 4학기 이상의 등록을 필한 자로 전체 학생 5%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총대의원회 정·부 의장은 상임위원으로 6학기 이상의 등록을 필하고 대의원 5%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졸업준비위원장은 6학기 이상의 대의원, 부위원장은 4학기 이상의 대의원으로 5% 이상의 대의원에 추천을 받아야 한다.

공개기구 후보자 등록 시 필요한 기본 서류는 입후보자 등록원서, 회원 5% 이상의 추천서, 재학생명서, 성적증명서, 투개표인 참관인 명단, 공약금 5만원, 선거본부위원장 명단이다. 총학생회, 야간총학생회, 총여학생 후보자 등록시 전체평점이 2.0이상이어야 한다. 입후보자가 현재 본교 학생회 및 공개기구 내에서 직무를 수행 시 해당 기구장의 직인이 찍힌 사퇴서를 중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상미 기자 sangmi@hansung.ac.kr

누구는 '편하게' 누구는 '힘들게', 영어커뮤니케이션 수업

내년부터 명예반 등 특성화 시도

신입생을 대상으로 2006년 1학기부터 시행한 영어커뮤니케이션 수업 반배치고사가 학생들의 실제 영어실력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영어커뮤니케이션 수업은 학생들의 효율적인 영어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수준별 수업을 진행해 왔다.

본래 영어커뮤니케이션 수업 반배치고사 문제는 교양영어위원회에서 출제했으나 올해부터는 변별력을 갖추기 위해 모의토의으로 대체했다. 하지만 시험결과가 학생들의 실제 영어능력과는 무관하게 나오면서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현식(한국어

문 1)학생은 "자신은 영어 커뮤니케이션 반편성 고사 문제를 풀 때 지문을 읽지 못하고 듣기평가 문제는 들리지도 않아서 결국 문제를 찍어서 풀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학생은 현재 3등급에 배치돼 수업을 듣고 있으며 진도를 소화하기가 벅찬 상태다. 영어커뮤니케이션 수업은 1~4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숫자가 높을수록 수업의 난이도가 높다.

위의 학생처럼 수업이 버거운 경우도 있지만 반대인 경우도 있다. 이명을 요청한 인문대의 1학년 학생은 "세터 때 선배들에게 반배치고사 시험에서 낮은 등급을 받으면 학점을 잘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성적을 잘 받고 싶어 선배들의 조언대로 등급을 낮춰 수업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이병은(영어영문학부·교양영어위원회위원장)교수는 "모의토의으로 시행한 반배치 고사는 변별력을 나누는 데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부러 시험 결과를 낮추려는 학생들에 대해 "근시안적인 행동"이라며 "예를 들어 취업 을 위해 기업에 제출해야 하는 성적표에 영어커뮤니케이션 1등급의 A학점과 3등급의 B학점 중 어느 것을 기업에서 더 선호할지는 뻔하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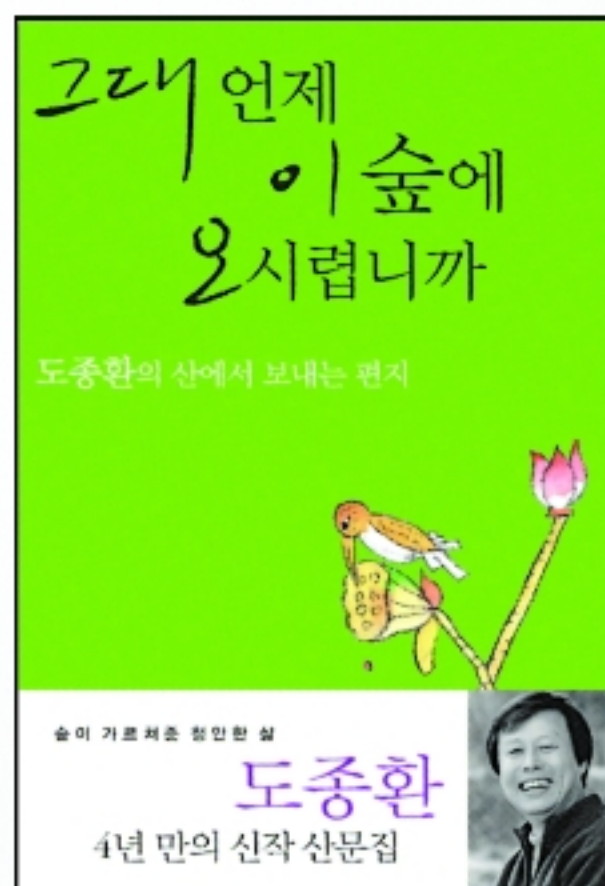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2011년도부터는 영어커뮤니케이션 수업의 운영방안이 일부 변

화될 예정이다. 이병은 교수는 "내년에는 영어커뮤니케이션 수업에서 학생들의 의욕을 끌어올리기 위해 최상위 등급의 명예반을 운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명예반은 반배치고사 최고점수 학생들로 구성되며 특전으로 일급 리쉬 라운지에서 외국인 교수와 그룹스피킹 수업을 할 수 있으며, 해외 어학연수 및 일반 연수에서 우선권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본인의 능력과 수업 수준이 상이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자기 수준에 맞지 않는 반에 배치되면 학기 초 교수의 허가를 받아 반을 이동할 수 있다"며 "내년부터는 반편성 고사가 끝난 뒤에 그 내용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상철 기자 ercas@hansung.ac.kr

제17회 학술정보관 문화행사



저자와의 만남

<접시꽃 당신> 도 종 환
마음을 움직이는 시, 세상을 움직이는 시

- 초청강사 : 도종환
- 저 서 : 그대 언제 이 숲에 오시렵니까
- 일 시 : 2010년 11월 18일(목) 오후 2시 ~ 4시
- 장 소 : 한성대학교 미래관 DLC
- 행사진행
 - 1부 : 독서퀴즈상 시상 (2:00~2:10)
 - 2부 : 저자와의 만남 (2:10~4:00)

- ※ 행운권 추첨을 통해 도서 증정
- ※ 지역주민도 강연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한 성 대 학 교 학 술 정 보 관

대학의 학문적 수준을 비추는 대학 출판사

우리대학, 출판 전문 인력 및 유통망 구조 보완해야



학교 부근 주택가 골목의 작은 2층 건물에 우리대학 출판부가 있다.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대학 출판부는 대개 그 대학 교수들을 저자로 해 책을 출판하며 그들 통해 대학의 학문적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곳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출판부에서 『글쓰기-ing』, 『대학과 지성』 등 학교 교재만 제작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대학 출판부는 그보다 다양한 종류의 책을 만들고 있다. 한 학기에 약 5~6권, 1년에 평균 15권 정도를 만드는 데 이 중 절반은 학교 교재가 아닌 일반 교양서적이다. 『발레의 탄생(김경자)』, 『희미한 하루를 쓰다듬고(한영덕)』 등의 책이 그 예다.

대학 출판부 서적은 크게 연구 총서, 교양 총서, 기획총서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연구총서는 교수의 논문 내용을 책의 형태로 실는 서적이며 교양총서 및 기획총서는 시중에서 구입하는 일반 책처럼 쉽게 읽을 수 있는 도서다.

대학 출판사는 대학 부설로 학술서적들을 주로 출판하는 비영리 출판사다. 이곳에서는 본교 교수의 연구 저작물과 강의 교재를 발간할 뿐 아니라 그 대학의 학술·학문적 지식을 보여주는 지표와 같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상현(미디어디자인콘텐츠학부·출판부장)교수는 “어떤 총서를 가지고 있는지는 그 학교의 학문적 수준을 보여준다. 좋은 콘텐츠를 갖고 있으면 전문가 집단에서 우리대

학의 이미지를 크게 재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대학출판사는 기성 출판사와 달리 대학이란 틀 안에서 고정된 독자층이 존재하는 분야로 오랫동안 부흥해 왔다. 그런 대학 출판사도 위기에 부딪혔다. 일반 출판사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좀 더 전문적인 책을 만들어내는 일반 출판사로 교수들의 발길이 옮겨간 것이다. 책을 출판하는 주요 교직원 교수의 입장에서 볼 때 대학 출판사는 디자인과 낮은 판매량 면에서 매력적 떨어진다. 일반 출판사는 편집 전문 인력을 두어 디자인에 신경을 쓰고 있지만 대학 출판사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 또한 비좁은 유통망 구조로 시중 서점에 책이 풀리지 않아 시장 장악력도 떨어진다. 이에 대학출판사는 예전과 다른 방향을 모색하게 됐다.

대표적인 예가 독자층을 일반으로 확대한 것이다. 서울대 출판부는 2005년 1월 대중교양서 『메리타스』 시리즈를 출간했다. 이는 고교 재학생 이상의 일반인과 대학 재학생을 주 독자층으로 설정했으며 책 판형도 가장 일반적인 신국판보다 작은 신 A5 변형판으로 보다 많은 독자들에게 쉽게 다가갔다. 이화여대의 경우는 자체출판사 ‘글빛’을 독립 브랜드로 갖고 세계 영화예술의 역사, ‘베란다 정원의 철학’ 등의 도서를 출간해 연 14억 가량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또한 일반 문고와 협약을 맺어 서점에 대학 출판부에서 출간된 책을

모아둔 코너를 두기도 한다. 교보문고 등 대형문고에서 서울대 출판부 도서 등을 취급하는 코너를 마련한 것이 그 예다.

우리대학 출판부는 출판전문 인력 부족과 홍보 문제가 보완할 점으로 꼽힌다. 우리대학은 현재 출판부 담당교수를 포함해 약 4명이 근무한다. 현재 연구원 자리는 공석인 상태로 출판전문 인력은 없다. 고대신문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한국대학출판부 협회에 가입한 대학출판부 80여 곳 가운데 평균 직원 수는 4명 이하인 경우가 많다. 중앙대 출판부의 경우 실무자 1명만 출판부를 담당하며 출판 전문 인력은 전무하다. 부산대 출판부는 3년간 16권의 책을 출간했다. 발행종수가 평균 80종 이상인 대학 출판부일수록 편집 및 영업인력에 전문 인력의 비율이 높다.

우리대학 출판부는 매년 꾸준히 약 15권 가량을 출판하고 있으나 홍보 및 유통망이 부족해 출판부의 좋은 책이 많이 알려지지 않은 점도 아쉬운 부분이다. 『오리엔티어링(김로빈)』 등의 경우 타 대학에서도 교재로 활용되고 있으며 『발레의 탄생(김경자)』 등도 구입 문의가 많이 들어오지만 실제로 책을 구입하기 위해선 구내서점 또는 출판부에 직접 문의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예슬(매디 2) 학생은 “『발레의 탄생』을 참고서적으로 구내서점에서 구입했다. 교내 출판부에서 나온 책인 줄 몰랐다. 좋은

책은 많이 홍보하고 구입방법이 편리해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재 우리 대학 출판부는 디자인 전문 인력을 채용하고 타 출판사와 협약을 맺어 유통망을 보완할 계획을 갖고 있다.

지상현 교수는 “개인적으로 책을 많이 출간한 경력에 의해 책만이 가질 수 있는 힘을 잘 알고 있다”며 “전문 분야로서 출판마케팅과 책 디자인에 대한 경험을 살려 아름답게 디자인된 책을 만드는 데 집중할 것”이라 전했다. 이어 책 종수를 늘리기보단 현재 출간되는 책의 디자인부터 틀을 잡는 게 급선무란 의견도 전했다. 그는 “서울대 출판부가 많은 책을 출간할 수 있는 이유는 1천명이 넘는 교수의 수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 대학 출판부의 책도 우리 출판부에서 책을 내고 싶은 욕구가 들도록 책의 질을 높인다면 자연스럽게 필자도 늘어나 종수도 많아질 것”이라 말했다.

새로운 지식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대학 출판부의 기능은 여전히 고유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지상현 교수는 “대학 출판사는 수동적으로 교수들의 책을 출간하는 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능동적인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제안했다.

이성미 기자 sangmi@hansung.ac.kr

교한학생 학생 정보통

NKU에서 미국의 대학 생활 엿보기

-편집자 주-

한성대신문에서는 이번 학기 동안 외국에 교환학생으로 나가 있는 학생들이 현장에서 보내오는 생생한 교환학생 수기를 실습니다. 뉴질랜드의 Unitec과 중국 북경의 화북전력대학교 교환학생 수기에 이어 이번호와 445호(종강호)에는 미국 Northern Kentucky University에서 공부하는 학생의 글이 실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1월부터 미국 Northern Kentucky University (NKU)에서 교환학생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교환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영어 공부를 하던 게 엇그제 같은데 이제 두 달 후면 한국에 돌아가야 한다니 믿기지 않네요.

우선 Northern Kentucky University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자면 Kentucky와 Ohio의 경계에 위치하여 사실상 Ohio의 생활권에 포함되어있습니다. Kentucky에는 한국인을 포함한 아시아인의 인구 비율이 낮고 다른 주에 비해 미국적인 색채가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어떤 수업을 들던 간에 저를 제외한 아시아인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각 미국 생활

을 시작했을 때에는 미국 대학생들과 한국 대학생들이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국적 상관없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 있는 반면 공부보다는 여러 가지 클럽 활동이나 아르바이트에 더 집중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이곳 NKU에는 학술 클럽, 운동 클럽, 여학생 사교 클럽, 기독교 클럽 등이 있습니다. 특히 배구부, 농구부, 테니스부, 축구부, 야구부 등 운동 클럽이 활성화되어 있어 미국인들의 스포츠에 대한 사랑을 엿볼 수 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점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비와 생활비를 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심이 강하고 나이는 어리지만 생활력이 강한 것 같습니다. 미국의 여름 방학은 4개월이나 되기 때문에 한국 학생들과 다를 바 없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일을 하며 돈을 모으거나 인턴십 등을 하며 경력을 쌓습니다. 이곳 학생들은 보통 학기에 4개에서 6개 정도의 수업을 들었습니다. 저는 현재 4과목을 듣고 있는데도

매주 과제와 퀴즈가 있어 종종 힘들 때가 있습니다. 또한 책을 미리 읽어야 하는 수업 시간에 따라가기가 벅할 때가 있어 미리 책을 읽고 수업 준비를 해가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수업 방식은 한국과 많이 다르지 않지만 이곳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한국 학생보다 적극적으로 자기 의견을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기금 수업과 관련 없는 영웅한 질문을 하거나 필요 없는 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수업 참여도가 높은 편입니다.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외국 학생의 고충을 이해하고 배려해 주시기 때문에 질문이 있거나 수업을 따라가는 데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동안 미국인과 미국 문화를 완전히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영어 실력을 늘리고 미국에서 수업을 듣고 다양한 국적의 친구를 사귀고 싶다면 교환학생에 도전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장민주(영어영문 4)

한성 정보 홍신소

저자와의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Q. '저자와의 만남'에서 저자는 어떠한 과정으로 선별되나요?
방문영(역사문화 1) 학생의 질문
A. 국내 대형서점의 베스트셀러 순위와 학생들의 관심도로 저자를 선정합니다.



우리학교 학술정보관에서 주최하는 '저자와의 만남'은 오늘 18일 도종환 시인과의 만남으로 열일곱 번째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매년 1~2회씩 열리고 있는 저자와의 만남의 역대 저자들은 단순히 문학 뿐 만이 아닌 현재 학생들의 최대 관심사에 놓여있는 여러 분야의 책들을 집필한 사람들이다. 2003년에는 고승덕 변호사가 '포기하지 않으면 불가능은 없다'라는 주제로, 2006년에는 주철환PD가 'PD 마인드로 성공 인생 연출하라'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또 2009년 '꿈을 이루는 비법'의 주제로 박정원씨가 강연했고, 올해 5월에 '인문 사회과학과 자연과학

의 행복한 만남'이라는 주제로 카이스트 정재승 교수가 강연했다. 이들은 어떤 기준으로 저자와의 만남을 추천할까. 첫 번째로 국내 대형 서점의 베스트셀러 순위 내에 있는 도서의 저자 중 사회적 인지도가 높고 학술정보관 이용자들이 계 교훈을 줄 수 있는 저자로 선별한다. 또 게시판에 올라온 학생들의 의견도 참고한다. 이러한 선별 과정을 통해 나온 저자의 홈페이지 혹은 공식적인 연락처로 연락을 취해 저자와 학교 측의 강연 시간을 조절하여 최종적으로 선별한다.

학생들의 인지도가 가장 높았고, 초빙하기 제일 어려웠던 저자는 전 월드비전 긴급구호팀 한비야 팀장이었다. 2004년부터 한비야 작가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월드비전에서 활동하고 있기에 그녀는 항상 해외에 있었다. 코이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태주(교양학부)교수 덕분으로 2008년 한비야 작가를 초빙할 수 있었다. 어렵게 초빙한 만큼 학생들의 반응 또한 역대 저자 중 가장 좋았다.

김양진(학술정보팀) 차장은 "저자와의 만남의 주된 목표는 다양한 분야에서 학생들과의 교감과 소통을 하기 위함이다"며 "이번 제17회 행사는 가을을 맞이하여 학생들을 정서적으로 위로하기 위해 '문학'을 주제로 선택했다"고 말했다.

김보현 기자 annyung17@hansung.ac.kr

이화방어기제검사 Workshop 안내

이화방어기제 검사는 대인관계나 심리적 갈등상황에서 특정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개인의 사고, 정서, 행동 및 태도를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워크숍을 통해 자기이해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관심이 있는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신청 : 11월 11일(목) ~ 11월 17일(수) 오전 9시~오후 5시
- 일시 : 11월 18일(목) 오후 3시 ~ 4시 50분

- 신청방법 : 방문신청(우촌관 210호), 전화신청(760-4171)
- 신청장소 : 학생생활상담실(우촌관 210호)

일할수록 가난해지는 '청년 워킹푸어'

디지털 유품, 생전에 처리여부 조사해야

나는 대학 졸업 후 현재 삶의 수준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까. 부모의 도움없이 집과 차를 구입하고 결혼을 계획할 수 있을까. 고스란히 남은 학자금에 값을 계획은 얼마나 세워져 있는가. 위 질문에 대한 대답이 부담스럽다면 '워킹푸어'(Working Poor)가 당신과 그리 먼 단어가 아닐지 모른다.



워킹푸어란 근로빈곤층을 의미하는 일종의 신조어로 일하면서 가난한 사람을 뜻한다. 열심히 일하는데 왜 가난해질까. 일전 모순으로 들리는 이 단어는 '청년실업', '저임금', '계약직과', '88만원 세대' 등 현재 경제 및 노동계의 거의 모든 문제와 연결된다.

저임금 및 계약직, 사회 안전망의 부재
일자리가 좋고 대학졸업자는 늘어나는 문제는 청년실업 문제의 핵심이다.

지난 달 12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내놓은 '청년고용률 제고 방안'에 따르면 청년층이 선호하는 국가기관, 대기업 등의 일자리는 외환위기 전인 1995년 412만 7천개에서 2008년 372만 4천개로 40만 3천개가 줄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이미 대기업의 일자리는 제조업에서만 38만개에서 32만개(2007년)로 쏙 빠져나갔다. 소규모 서비스업의 일자리는 늘었다. ▲1~4인 사업체의 신규 취업자가 62만9000명 ▲5~9인 47만3000명 ▲10~19인 34만3000명 ▲20~49인 26만5000명, 2007년 '괜찮은' 일자리는 줄고 저임금 고용은 늘었다는 얘기다.

반면 대학진학률은 1995년 51.4%에서 2008년 83.8%로 높아져 대학 졸업생수는 33만명에서 56만명으로 23만명 늘어났다. 등록금 등으로 1년에 약 1천만원의 학자금 대출을 끼고 졸업한 대학생들은 졸업 후 실업자 또는 저임금 노동자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대학만 졸업하면 대부분 안정된 직장을 가

질 수 있었던 부모세대와 상황이 바뀐 것이다. 김영경(청년유니온)위원장은 "90년대까지는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경제구조를 갖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시기였지만 IMF 이후 정리하고 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줄어든 일자리에 많은 사람이 경쟁하니 사용자의 입장에선 적은 임금으로 사람을 쓸 수 있게 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 초년생인 청년. 일하기 힘든 노인 등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대상들이 안전망 밖으로 벗어나며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문제를 더욱 키우는 요인"이라 덧붙였다.

인력부족, 사회적 무기력, 부모세대로 고통 전가

주 경제활동인구인 청년들의 워킹푸어 문제는 자연히 인력부족 문제로 이어진다. 해가 갈수록 낮아지는 출산율 문제는 여러 원인이 있지만 결혼 연령대의 젊은이들이 결혼을 준비할 여유가 없다는 것도 중요한 원인이다. 김 위원장은 "이는 가족해체를 낳고 이는 인력부족으로 이어지며 '미래의 파산'이라 말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에 대한 청년들의 우울과 분노로 사회적 갈등과 위기를 초래할 공산이 크다. 먹고 사는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데

대한 불안, 몇 년간 시간과 돈을 들여 공부했지만 적당한 직업을 찾을 수 없는 데서 오는 불안감 문제다. 스펙도 더불어 빈부격차가 커지고 있다.

홍지혜(23, 대학생)씨는 "전공과 무관한 분야에서 저임금, 계약직으로 일하는 친구들의 사례가 많이 있다. 어학연수나 유학 등 돈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최근 발생한 일명 '장관 딸 특혜 사건'까지 사회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지만 고칠 수 없는 고질적인 문제가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청년들의 빈곤문제는 부모세대로 그 고통이 전가되기도 한다. 결혼자금 등 각종 목돈을 부모에게 의존하게 되고 자식이 독립하지 못함에 따라 부모 역시 자신의 노후를 고민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경제정책 구조부터 바꿔야

1990년대 말 갓 졸업한 청년 7만명이 실업 상태에 있던 벨기에에는 청년실업 의무고용제인 '로제타플랜'을 시행해 2001년 누적 고용 효과가 20만명에 이를 정도로 큰 성과를 거뒀다.

모 경제지에 실린 김성희(고려대 경제학) 연구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이 로제타 플랜을 변형해 한국에 적용할 시 100명 이상 기업에

총 고용 인원의 5% 의무고용제를 도입하면 2005년에 14만 1533명의 청년실업자를 고용할 수 있는데 이는 당시 청년 실업자의 약 50% 수준이다.

김영경 위원장 역시 "현재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에서 신규채용자를 3% 의무고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100인 이상 기업부터 '의무'로 바꾸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제도"라며 "예연연 기업이 신규채용 시 수습사원이란 제도를 두어 청년들을 교육했다. 그러나 현재는 대학에 그 역할(직업 교육)을 전가하며 대학을 기업화하며 저임금 인턴제를 통해 인력만 사용한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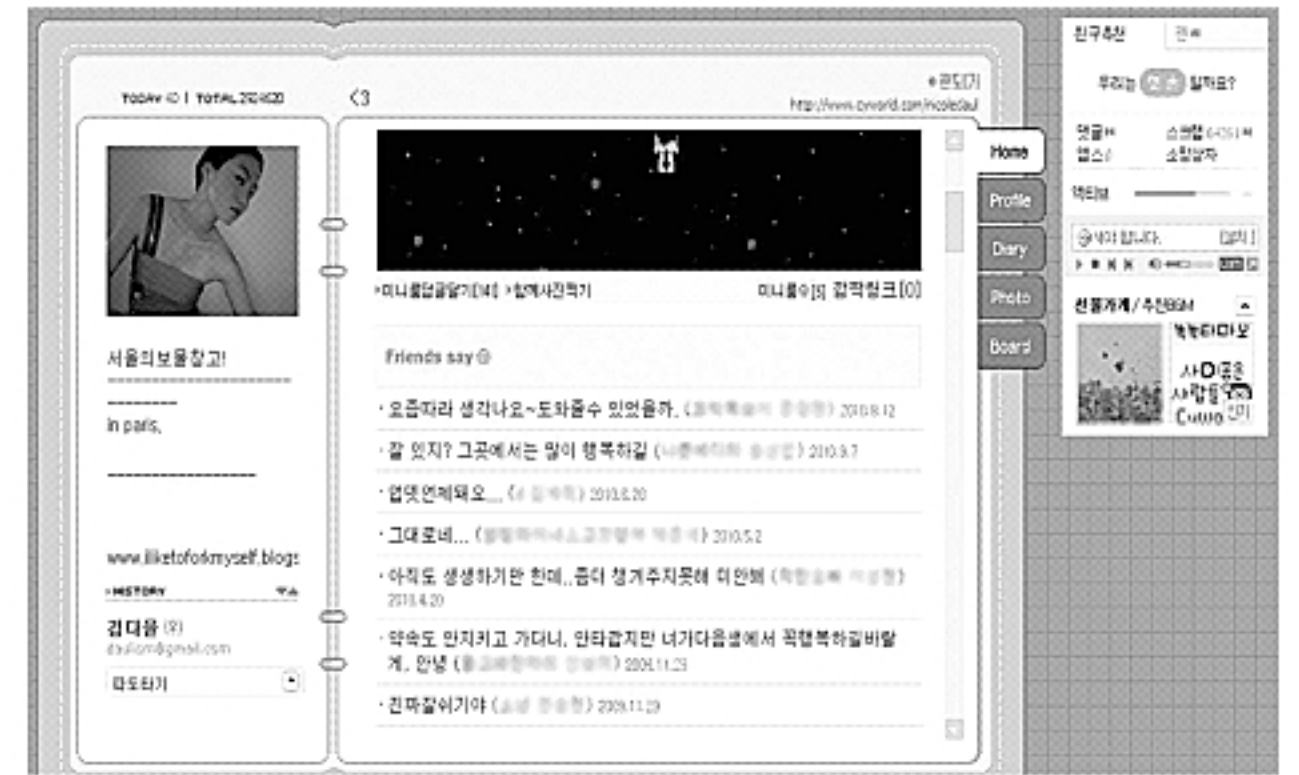
이는 단순히 경기회복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더욱 각성이 시급하다. NHK스페셜 프로그램 '워킹푸어'에서 우치하시 가츠토(경제평론가)씨는 "경기회복으로 기업은 최대의 이익을 창출해버린 매출 자체는 조금씩 증가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사람들을 해고함으로써 이익을 올린 것이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정규직 고용을 줄이고 비정규직 고용을 늘려서 얻은 경비 절감이 이익을 가져왔을 뿐이라는 것이다.

김영경 위원장은 "100인 이상의 탄탄한 기업은 고용을 창출할 사회적 책임이 있다. 저임금, 계약직으로 실업문제를 가중화시키는 현 기업의 모습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며 "4대보험 보장, 안정적인 경제구조 마련 등 실질적인 중소기업 지원방안이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나라가 성장해야 고용이 이루어진다"는 현 경제정책의 기초에서 탈피해 '고용이 이뤄져야 나라가 성장한다'고 개념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이성미 기자 odory11@hansung.ac.kr



▲故 김다울씨의 미니홈피, 사후에도 여전히 팬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가 SNS에 올리는 글이나 사진, 영상들을 비롯해 전자우편 등의 많은 서비스 사용 기록들이 디지털형태로 남는 '유산(遺産)'이 되었다. 하지만 현재는 사망자가 남긴 디지털유품처리의 명확한 법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이러한 문제는 고인이 된 연예인들의 미니홈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중들의 별이 떨어지는 비극적인 죽음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05년 영화배우 고(故) 이은주의 자살을 시작으로 최진실과 장국영, 정다빈, 안재환, 유니, 모델 김다울, 박용화 등 국내 외 많은 연예인들이 잇따라 유명을 달리했다. 이러한 스타들이 고인이 된지 여러 해가 흘렀지만 미니홈피에서는 팬들의 발자국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그곳에서는 아프지 말고 행복하세요", "웃는 모습이 보고 싶습니다" 등의 글로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그렇다면 고인이 된 스타들의 미니홈피 관리는 누가 관리할까. 안진희(SK커뮤니케이션즈 소셜네트워크사업장)장은 "고인들의 미니홈피나 블로그는 제 3자에게 승계할 수 없

도록 한다. 제 3자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될 경우 명의도용으로 해당 홈페이지를 폐쇄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추모공간으로 운영하기를 허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외의 경우, 독일에서는 사자(死者)의 법적 상속인은 죽은 이의 홈페이지, 이메일 계정, 소셜미디어 계정도 상속할 수 있지만 유족이 직접 디지털유품의 소재지를 찾고 상속인임을 입증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또한 스웨덴에서는 인터넷 이용자가 생전 기간에 인터넷 유언장을 작성토록 하는 서비스도 등장하기도 했다.

성동진(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차장은 "죽은 이가 비공개로 운영한 블로그나 주고 받은 메일에 대해서는 처리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몇 년 안에는 생전기간에 이용자에게 상속대상과 내용을 미리 조사하고 처리하는 서비스가 등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혜진 기자 odory11@hansung.ac.kr

통계로 본 한국사회

대학생 40%, 술은 친구에게 처음 배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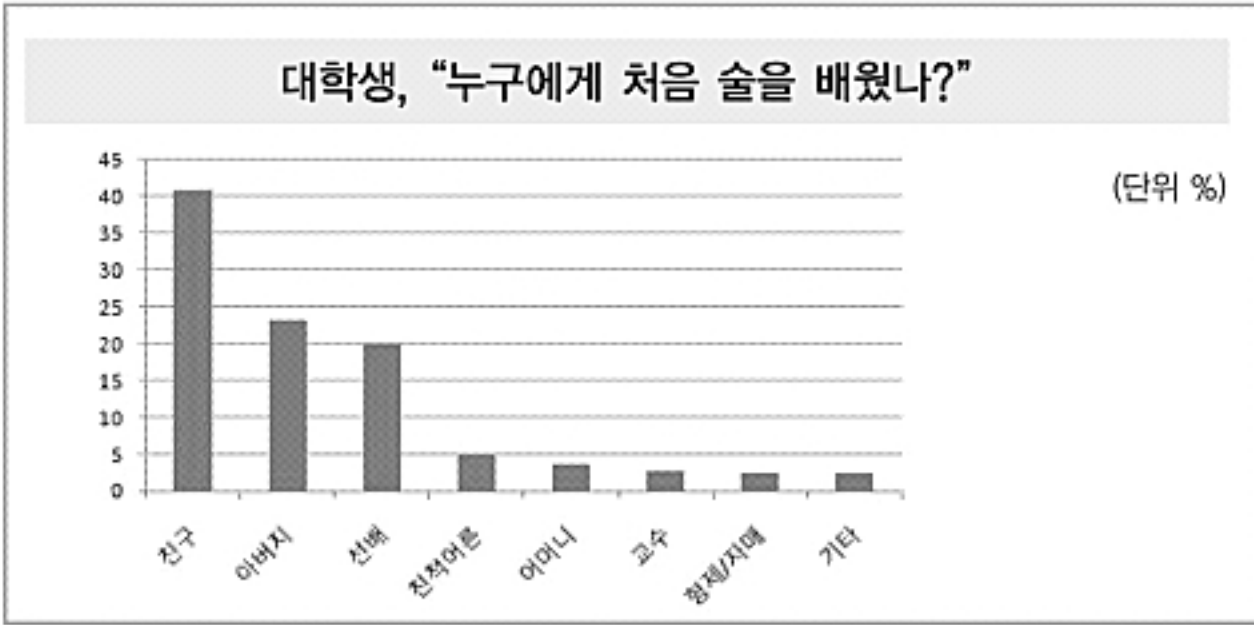
한 구인구직 포털에서 '누구에게 처음 술을 배웠나'란 질문에 2천723명 중 1천114명인 40.9%의 대학생이 '친구'라고 답했다. 다음으로 아버지가 23.2%로 2위를 차지했으며, 선배에게 술을 배웠다는 사람이 19.9%, 나머지 비중은 친척어른, 어머니, 교수, 형제·자매 순이었다. 그 밖에 '일주일에 평균 몇 번이나 술을 먹나?'라는 질문에 남자는 2.4회, 여자는 1.5회로 약간의 차이를 보였고 전체적으로는 평균 2회로 나타났다.

정현식(한국어문 1)학생은 "친구들, 동기들과 함께 있으면 술자리를 함께 할 때가 많은데, 자연스럽게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술을 배우는 것 같다. 술자리를 같이 하지 않으면 소외감을 느끼기도 하는데 술을 마시면서 사람들과 더욱 친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정현정(영어영문 1)학생은 "부모님들은 우리가 대학생이 되도 어리다고 생각해서, 술을 잘 알려주시지 않는 것 같다. 대학생이 되고나서는 왠지 술을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

이 들게 돼서 술을 먹는 것 같다. 술을 마시면 어른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의견을 전했다.

대학생이 친구에게 술을 처음 배우는 비중이 높은 데에는 이유가 있다. 홍성미(학생생활상담소)상담사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인해 어른 앞에서는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는 전통이 남아 있다. 그러나 대학생이 되면서 그러한 가치관은 무너지고, 공식적으로 자신을 자율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다는 인정을 받게 된다"며 "술을 마시는 것은 일종의 성인식의 변형으로서 하나의 통과의례라고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일주일에 음주를 하는 횟수에 관한 결과에 대해 "술은 본래 남성중심의 문화였다. 현대사회로 들어오면서 음주문화도 평등해졌지만, 지금도 그 문화가 남아있는 것이 하나의 이유다. 또한 신체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몸 속의 수분함유 비율이 높아 비교적 늦게 취하는 것도 술을 접하는 횟수의 차이를 보이는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성미 상담사는 "인류가 생긴 이래로 술도 존재했다. 기분을 바꾸고 싶은 욕구로 인해 사람들은 술을 마시게 되는데, 술은 중추신경을 약화시켜 진정제 역할을 한다. 통제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권리를 할 수 있다면 음주의 욕구가 나쁜 것은 아니다"며 "특히 중요한 것은

서로의 인권, 즉 개인자, 신체, 심리적 조건 등을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서로를 배려하는 것이 가장 요구되는 태도이다"라고 바람직한 술 문화에 대해 의견을 전했다.

공유희 기자 gong0930@hansung.ac.kr



2010년도 시간(동미참/항기 및 1,2차)보충훈련 참석 안내 공지

- 일시** : 2010년 11월 22일(월) ~ 26(금), 일일 훈련시간 09:00~18:00(8H)
- 장소** : 덕릉예비군교정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소재, 당고개)
- 대상** : 한성대(원)교 학생예비군 중 1~6년차 훈련 불참 및 미 이수자
* 개인별 훈련 일자 및 시간 : 첨부파일 참조(성명 및 군번으로 확인)
- 행정사항**
 - 신분증 필히 지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규정된 예비군복장 착용(전투복, 전투모, 전투화, 요대 및 바클, 고무รอง)
 - 09:00까지 입소, 지각할(09:30 이전 입소자)시 추가 교육 1시간
 - 09:30 이후 도착 시 입소 불가하며 무단불참 시 고발조치 됨
 - 문의전화 : 02-760-4176, 010-5075-6553(예비군대대 : 우촌관 208호) 02-934-8764~5(덕릉예비군훈련장)

- 5 기타**
 - 대중교통 이용 시 : '전철 4호선 당고개역 1번 출구 건너편'에서 33번, 33-1번, 10-5 번 시내버스 승차 당고개 덕릉예비군훈련장 하차 / 입소
 - 자가 차량 이용 시 : 상선교 →미이리교개 →드림랜드 →당고개역 →덕릉예비군훈련장
 - 훈련 간 중식용 식권과 학교 수업출석 인정 등에 필요할 경우 개인별 학교예비군대대 (우촌관 608호, 전화 02-760-4176)에 방문하여 중식 식권 및 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여 훈련에 참가 바랍니다.
 - * 식권 미 수령자는 개인이 식비를 부담해야하고 훈련 무단 불참 시 불이익을 받으며 개인별 훈련일자 및 시간은 한성공지 첨부 파일에 성명 및 군번으로 확인하여 참석바람.
 - * 단 미처 전입신고를 미 실시한 대학(원)생 예비군대원은 한성대학교 예비군대대에 전입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전입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왕과 국가의 권위를 공고히 하는 목적으로 추어진 연희, 궁정발레

몇 년 전부터 해외에 진출해 활동한 걸그룹들의 춤 열풍은 아시아를 강타하고 있다. 이러한 춤이 각광받는 것은 시대적, 지리적 환경과 경제, 사회적 발전과 맞물려 그 형태를 바꿔 진보하며 무엇보다 파급력이 대단하기 때문이다. 춤은 우리들의 생활을 흥겹고 풍요롭게 해주는 원동력이다. 어느 시대이건 흥겨운 자리라면 절대 빠질 수 없는 것이 춤이다. 하지만 400~500여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보면, 당시의 춤은 왕의 권위를 공고히 하는 목적을 내포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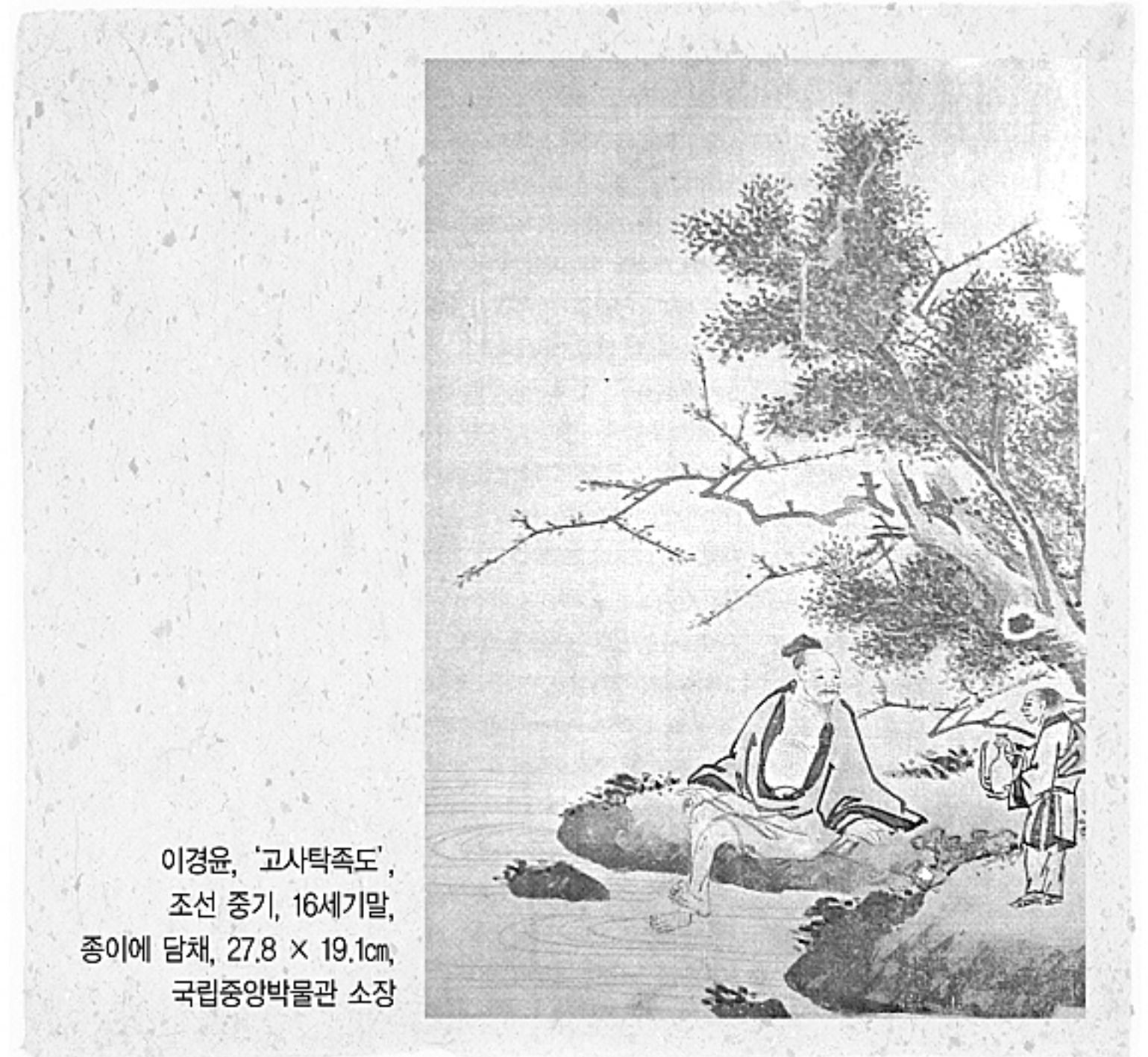
악에 심취하게 된다. 김경자(무용학과 교수)는 '루이14세는 5살 때 국왕으로 즉위해 7살부터 춤 연습에 몰두. 12살 때 처음 무대에 섰다'며 '당시 귀족계급의 최후의 반항이었던 프른 드의 난으로 인해 심신이 피로했던 사람들에게 젊고 의연한 군주의 춤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기 적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춤을 좋아하는 재능있는 루이를 정치적인 선전물로 내세웠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춤추는 것을 즐겼던 루이는 예술에 열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무용의 역사』(제르멘스프루도, 삼신각)에 의하면 '루이 14세는 무용을 하나의 예술로서 간주하였으며 모든 예술은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함으로써 프랑스의 권위에 기여할 수 있고 기여해야 한다고 믿었다'고 설명한다. 작품 '밤의 발레' 공연을 통해 '태양왕'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는 그는 태양을 숭배해 '태양왕 아폴론'을 포함해 여섯 인물

의 역할을 맡았다. 또한 왕실은 왕국이 돌아가는 축이자, 태양이라는 자신의 정치철학을 밝혔다. 그는 왕권에 어울리지 않는 소규모 궁정발레를 억압하면서 귀족들이 자신과 경쟁대가 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김경자 교수는 '루이 14세는 기존의 해학적인 캐릭터가 주를 이루었던 13세와는 달리, 그리스 토마신화의 캐릭터로 구성되고 국왕의 영광을 찬미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며 '왕권은 신으로부터 주어졌으므로, 왕은 신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며, 인민은 저항할 없이 왕에게 절대 복종하여야 한다는 왕권신수설을 제창하는 왕이었다'고 설명했다. 『서양무용예술사』(서정자, 대한미디어)에서는 '베르사유 궁정은 역사상 가장 우아하고 극장적인 무대였다. 이것은 엄격한 예의범절, 화려한 행렬과 소적인 계급에 의해 지배를 받았던 왕의 날은 항상 루이가 공연자로

동양화 스토리

세속을 초월한 고고한 선비의 남량(納凉)



이경윤, '고사탁족도', 조선 중기, 16세기말, 종이에 담채, 27.8 x 19.1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남량'이란 단어를 옥편에서 찾아보면, '들일 남(納)'과 '서늘 량(涼)'이 붙어서 된 말이라고 나와 있다. 즉 '더운 여름에 서늘하게 바람을 쐬다'는 뜻으로 이해한다면 별 무리가 없을 듯하다. 굳이 직역을 한다면 '서늘함을 들인다'라는 의미라 하겠다. 찌는 듯 한 더위가 계속되는 여름이면 누구나 시원한 물에 몸을 담그고 싶어 한다. 이러한 욕망에는 동서고금의 차이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유학사상에 흠뻑 젖은 옛 선비가 고매한 품위를 잃지 않고 남량하는 방법에는 삼민들과는 달리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게 마련이었다. 벗은 몸으로 물가에서 수영이나 목욕을 즐길 수 없었다. 그들은 고차 발을 벗고 물에 담그는 탁족(濯足) 정도도 매우 즐거워했을 것이다. 선조들이 인품을 닦기 위해서 항상 명심했던 구절이 또 있다. '탁족도'가 그것이다. 산간 계곡에서 마치 밭이 시린 듯 다리를 꼬고 있는 도사의 모습이 보기에도 시원한 이 그림은 주로 여름에 그려서 주고받았다. 임금도 도화서에 '탁족도'와 '금강산도'를 그리도록 하여 이 그림을 넣은 부채를 만들어 삼복에 신하들에게 하사하였다고 한다. 본래 탁족이라는 말은 단순히 '발을 씻는다'는 뜻 이외에도 '탁영탁족'의 의미를 함께 지니고 있다. '창량의 물이 맑으면 내 갯 간을 씻고 창량의 물이 흐리면 내 발을 씻는다'는 내용의 '어부사'에 나오는 탁영탁족이라는 말은 세속을 초탈하여 무슨 일이든 자연스럽게 되어 가는 대로 맡겨야 한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다. 여러 가지 세상사로 괴로워하는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아직 도움이 되어주는 교훈적인 옛말이라 하겠다.

탁족을 소재로 한 그림은 중국에서 종종 그려졌으며 17세기 청대에 출간된 『개자원화전』의 '인물육우보' 중에도 '탁족만리류'라는 본보기 그림이 실려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조선 중기의 이경윤(1489~1552)이 그렸다고 전해지는 '탁족도'들이 남아 있어서 그 연원을 짐작케 한다. 이경윤의 작품으로 전해지는 '탁족도'는 국립중앙박물관과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각각 한 폭씩이 소장되어 있다. 여기에 소개하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탁족도'는 수묵을 위주로 하고 약간의 담채를 가하여 그린 것이다. 오른쪽으로부터 비스듬히 솟아오른 나무의 가지들이 상하로 적당히 뻗어 나와 화면을 알맞게 채워주고 있다. 이경윤의 '탁족도'는 절파계통의 화풍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예이다. 간결하고 짜임새 있는 구성, 생동감 넘치는 인물묘사, 대담하고 활력에 찬 주변 자연환경의 표현 등이 모두 이 그림을 성공적인 작품으로 승화시켜 준다. 이처럼 감상자의 눈이 가장 닿기 쉬운 곳에 핵심을 이루도록 주인공을 그려 넣고 그 주변에 대담한 필치로 처리한 바위나 언덕 혹은 나무를 배치하는 구성은 절파계통의 소경산수인물화의 한 특색이라 하겠다. 즉 산수보다는 인물중심의 그림인 것이다. 본 '탁족도'는 주인공의 선비다운 모습, 자연스럽게 흐트러진 옷매무새, 맑게 흐르는 물, 그늘을 드리우는 나무 등이 어울려 기운생동하면서 시원한 느낌을 자아내준다.

이근우 / 중명대 강사

학술서평

루이 14세는 왜 춤에 집착했나

『루이 14세와 베르사유 궁정』/생시몽 지음 /나남



예술에 대한 그의 유별난 집착에 가까운 사랑은 그가 매우 어린 나이에 왕정에 재위했다는 사실과 깊은 연관이 있다. 루이 13세와 스페인 출신 왕비 안 도트리슈 사이에서 태어난 루이 14세는 1643년 5살이 채 안된 나이에 부왕의 왕위를 계승하게 된다. 왕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아 내란이 벌어지게 되었고 루이는 가난함과 불운함, 두려움과 굴욕감, 추위와 배고픔을 겪어야 했다. 당시 프랑스 총리였던 마자랭은 반란을 진압했으며 그의 가르침을 받는 루이와 더불어 프랑스를 통치했다. 어린 왕 루이 14세는 예술과 우아함 그리고 과시하기를 특히 좋아하는 마자랭의 성향을 물에 익혔다. 루이14세는 왕이었지만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어머니와 재상의 섭정으로 직접 나라를 다스릴 수 없었다. 그

때라서 '왕의 신체'는 곧 국가 전체와 동일시 되었다. 따라서 춤, 즉 발레의 발달사는 곧 왕이 장악하고자 한 사회와 권력의 발전 또는 전이라는 의미를 가진 상징적 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발레의 상징적 의미와 기능이, 또한 예술을 중시했던 루이14세의 인생 스승이었던 마자랭의 영향력이 루이14세로 하여금 예술에 집착하게 만든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책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한 묘사는 초상화처럼 정교하고 세세하다. 외적할 수 있게 만들었다. 자신을 부각시킬 수 있는 수단이 적었던 그 시절 발레는 자신을 과시하고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수단으로 적격이었던 것이다. 쉽게 말하면 당시의 발레는 오늘날 미디어의 역할까지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당시에는 왕이 곧 국가였으며

따라서 '왕의 신체'는 곧 국가 전체와 동일시 되었다. 따라서 춤, 즉 발레의 발달사는 곧 왕이 장악하고자 한 사회와 권력의 발전 또는 전이라는 의미를 가진 상징적 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발레의 상징적 의미와 기능이, 또한 예술을 중시했던 루이14세의 인생 스승이었던 마자랭의 영향력이 루이14세로 하여금 예술에 집착하게 만든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책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한 묘사는 초상화처럼 정교하고 세세하다. 외적할 수 있게 만들었다. 자신을 부각시킬 수 있는 수단이 적었던 그 시절 발레는 자신을 과시하고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수단으로 적격이었던 것이다. 쉽게 말하면 당시의 발레는 오늘날 미디어의 역할까지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당시에는 왕이 곧 국가였으며

따라서 '왕의 신체'는 곧 국가 전체와 동일시 되었다. 따라서 춤, 즉 발레의 발달사는 곧 왕이 장악하고자 한 사회와 권력의 발전 또는 전이라는 의미를 가진 상징적 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발레의 상징적 의미와 기능이, 또한 예술을 중시했던 루이14세의 인생 스승이었던 마자랭의 영향력이 루이14세로 하여금 예술에 집착하게 만든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책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한 묘사는 초상화처럼 정교하고 세세하다. 외적할 수 있게 만들었다. 자신을 부각시킬 수 있는 수단이 적었던 그 시절 발레는 자신을 과시하고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수단으로 적격이었던 것이다. 쉽게 말하면 당시의 발레는 오늘날 미디어의 역할까지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당시에는 왕이 곧 국가였으며

이경준 기자 kr88@hansung.ac.kr

표현 능력 상담 프로그램 신청자 모집

2010년도 2학기 한성대학교 사고와 표현 교육과정 위원회에서는 본교 재학생들의 표현 능력 신장을 위하여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재학생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목 적 ◎

1. 면대면 상담을 통한 개별 학습자의 글쓰기 고민 해결?
2. 논리적이고 구조적인 사고능력과 표현 능력 향상
3. 전공과목과 교양과목의 리포트를 체계적으로 작성하는 능력 향상?
4. 글쓰기와 프레젠테이션 문서 작성 능력 향상

상담 신청 방법

1. 신청 자격 : 한성대학교 재학생
2. 상담 기간 : 2010년 9월 13일(월) ~ 2010년 12월 10일(금)
3. 상담 영역 : 리포트, 프레젠테이션 문서, 논문, 서평 등
4. 신청 방법 : writing center 홈페이지 <상담> 메뉴 이용 (<http://writingcenter.hansung.ac.kr/>)
5. 상담 내용 : 맥락 파악, 주제 이해, 아이디어 생성, 글의 전개, 문장 표현 등
6. 기타 문의 : 사고와 표현 연구실(연구동 B101, ☎ 02-760-4354)

상담 진행 방법

1. 상담 신청은 writing center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제를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2. 상담 희망 일시 48시간 이전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 현황은 MY PAG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상담 진행은 상담원과 학생 간에 면대면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4. 상담 시간은 학생 1명 기준으로 30분~1시간 이내로 이루어집니다.
5. 상담 신청자 유의사항
 - 1) 상담 신청 시 홈페이지의 신청 항목에 내용을 모두 입력해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 2) 상담 전에 과제 해결에 필요한 참고 서적을 미리 읽어야 합니다.
 - 3) 상담 시 과제 준비 과정과 준비한 글을 개발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고와 표현 교육과정 위원회

사설

칠레 광부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삶의 진리

이번 가을 지구촌을 감동시킨 기적 같은 사건이 있었다. 칠레의 산호세 광산에서 갱도 붕괴 사고로 지하 622미터 지하에 갇혔던 서른 세 명의 광부가 69일 만에 모두 무사히 구조된 것이다. 사고 현장에서 광부들이 구조되는 순간 세계 각국의 이목은 이곳에 집중되었다. 전 세계의 언론사가 현장에 몰려들어 광부들의 구출 현장을 생중계 하였고, 그들은 명 한 명이 구조되어 나오는 순간마다 지구촌 사람들은 이념과 국가를 떠나서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그들의 생존 소식이 전해진 것은 갱도 붕괴 후 무려 17일 만이었다. 그들이 살아있을 리 없다고 생각하던 순간 전해진 기적적인 소식은 사람들을 흥분시켰다. 그리고 그때부터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과학 기술을 총동원하면서 그들을 구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되었다. 구출된 후 광부들은 누구도 그들이 살아 있다는 것을 모르는 상태로 지상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던 때를 후 17일(11월 69일)의 시간 중 가장 힘들었다는 고백을 하였다.

도대체 그들이 그 극한의 상황을 견딜 수 있게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물론 그들은 병법한 사람들이기에 지하에 매몰된 후 처음에는 극도의 공포심 속에서 절망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도 그들은 구조의 손길이 언젠가는 오리라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결코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은 그 희망이 현실화되는 순간을 대비한 생존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각자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갔다. 희망을 생각하고자 힘든 상황에서, 강한 의지력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면

서 최선을 다했기에, 이 사건은 인류 역사상 최장기간의 지하 매몰 생존 사건으로 기록되면서 행복한 결말을 맺을 수 있었다.

지하에 매몰되는 것 같은 극단적인 상황은 아닐지라도,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출구가 보이지 않는 어두운 동굴 속에 갇힌 것 같은 막막함을 느낄 때가 있을 것이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고등학생, 취업난 속에서 졸업 후의 진로를 생각하는 대학생, 실직이나 사업상의 어려움 때문에 고민하는 가장 등, 생각해 보면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셀 수도 없을 정도다. 특히 요즘같이 경쟁이 치열해진 사회에서는 주변의 모든 사람이 적이고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생각에 빠지기 쉬운데, 그 순간 상황이 주는 막막함을 공포심마저 느끼게 할 정도로 커진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그저 주저앉아 버린다면 우리 삶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희망을 잃지 않고, 꿈을 현실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천해 나가는 의지력만 있다면 어떤 고난도 극복할 수 있다는 평범한 삶의 진리를 칠레 광부들은 다시 한 번 우리에게 보여 주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칠레 광부들도 혼자였다면 결코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없었을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 함께 이 어려움을 헤쳐 나갈 삶의 동반자라는 것 또한 일깨워 주었다. 언제나 새로운 일들로 넘쳐 나면서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듯 보이는 요즘 세상이지만, 칠레 광부들이 우리에게 일깨워 준 삶의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다.

교직원 인터뷰

글로벌 시대에 세계로 나아가는 학교를 위해

우리 학교엔 원활한 학교 행정을 위해 힘쓰는 교직원들이 있다. 이에 그들을 엿볼 기회가 되는 지면을 구성했다. 이번 호엔 대외협력팀의 김일환 팀원을 만났다.

수험생들이 학교를 선택할 때 선택 기준이 되는 것은 학교 뿐만 아니라 교내의 프로그램도 고려 대상이 된다. 그 중 어학 연수나 교환학생 등 해외에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은 많은 학생이 관심을 갖는 부분이다.

대외협력팀의 김일환 팀원은 우리학교 국제교류 업무를 담당한다. 그는 "대외협력팀은 학교를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배포하고 세계의 학교들과 교류를 추진한다. 그 밖에 학교 운영을 감시하는 내부감사도 수행하고 있다"며 학교 내 팀의 역할을 설명했다.

그는 대표적인 해외 프로그램인 교환학생 제도에 대해 "해외 대학과 자매결연을 맺기까지 교수님들의 개인적인 네트워크 혹은 인적 교류로 연이 맺어진 후 자매결연 학교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며 "현재 필리핀의 Angeles University Foundation 등 많은 학교가 교수님들의 개인적인 네트워크 크로 자매결연이 된 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그는 "자매결연을 맺을 때에는 학교간의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 하고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최대한 긍정적 효과와 이득을 줄 수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한다"며 "현재 우리학교는 미국, 중국,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등에 있는 약 20개 대학과 결연을 맺고 이에 한해 80~90명의 학생들이 교환 학생이나 영어캠프 등을 통

해 외국에서 공부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환학생이나 해외인턴십을 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영어능력과 학점 등 조건을 필요로 한다. 이에 대해 그는 "우리학교를 대표해 교환학생이나 해외인턴십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의 대표라는 생각에서 이미지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면접에서 기본인성과 인격도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담당하는 일 대해 "우리 학교에서 해외 교류 프로그램에 지원했던 학생이 실력이 더 향상되어 돌아왔을 때, 그리고 취업에 성공한 학생이 찾아와 '프로그램 덕분에 도움이 많이 되었다'라며 말할 때 보람을 느낀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학생들에게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한성대 졸업장뿐만 아니라 개인의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며 "글로벌 시대에 맞는 사고와 시각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 덧붙여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학교에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라. 학생들의 참여도가 높아야 그것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도와줄 수 있다"며 "학교에서 학생에게 지원하는 것이 많으니 프로그램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라"고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많은 참여를 부탁했다.



김일환 팀원(원쪽)
대외협력팀

박소영 기자 ksyoungh@hansung.ac.kr

의 화 정



이민석 교수
(컴퓨터공학과)

사실 따지고 보면, 취업이 수월했었던 시절은 없었지만, 특히 요즘에 취업은 큰 사회적 문제이다. 또, 취업률은 대학 평가에서 상당히 비중이 높은 지표이기 때문에, 모든 대학이 취업을 제고를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대학 4년은 대부분 학생들의 인생에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장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훌륭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한 밑천을 마련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학교가 존재하는 이유라면, 당장의 취업률도 중요하지만,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전략이 필요하다.

학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학생 취업 관련 노력과 함께, 우리 졸업생들을 채용한 회사의 고용주 또는 상급 직원들의 의견을 고려한 전반적인 교육 방식 및 교육 목표의 개선, 졸업생들의 경력 추척에 의한 모델 케이스 발굴, 졸업생들 사이 그리고 재학생과 졸업생들 사이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기회 창출 등을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이런 활동들은 주로 학과 단위에서 진행되지만, 모든 산업이 사회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융합되어가는 시점에 학과 단위의 목표 설정과 네트워크 형성 지원이 절실

취업에 관한 단상

하다.

누구나 공감하듯이 취업에 성공한 비율보다는 취업의 질이 더 중요하다. 취업의 질은 포괄적인 연봉, 발전 가능성, 성장감 등이다. 높은 품질의 취업과 장기적 경력 개발을 위해 학생들이 준비해야 할 것을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전공에 대한 열정이다. 아마도 이 부분이 한국의 대학들에게 가장 취약한 면이지만, 일단 있다고 치자.

두 번째는 전공 관련 능력이다. 학생들은 학점에 집착하지만, 발전 가능성이 있는 회사들은 이 지원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집착한다. 이런 관점에서 학점과 함께 전공 경력이, 자격증 보다는 경진대회 수상 실적, 가장 큰 보다는 포트폴리오의 사회적 임팩트가 더 의미로써, 이러한 것들을 잘 포장하는 커뮤니케이션 능력 또한 중요하다.

세 번째는 이력서이다. 많은 학생들은 친구가 입사 인터뷰를 하러 가는 것을 보고서야 자신의 이력서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력서는 자신의 과거보다는 미래를 위한 선언문 같은 것으로 1학년 때부터 준비해야 한다. 사소한 것들을 포함하여 잘 배우고, 느꼈는지, 그리고 미래를 위

해 더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록하고, 매일 리뷰를 해야 한다. 글로 적지 않은 것은 이를 수 없다.

마지막으로 언어 능력이다. 학교에는 두 부류의 학생이 있다. 영어에 전혀 관심이 없거나, 영어에 너무나 많은 것을 투자하거나. 일부 전공에서는 영어가 학문의 영역이지만, 다른 학생들에게 영어는 도구에 불과하며, 아직도 우리나라의 대부분 직업에 필요한 영어의 수준은 자신의 전공 영역에 해당하는 영어 문서를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면 충분하다.

다시 학교가 해야 할 일로 돌아가 보자. 우리 대학은 교육 중심 대학으로서, 교내 행정은 강의와 교육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평가 시스템은 다분히 교수의 개인 연구 중심이다. 이렇게 된 이면에는 외부적 요인이 크지만, 궁극적으로는 각 평가 요소의 비중을 설정할 때, 학생들의 장단기적인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가 고려되어야 한다.

늘 그랬듯이 취업은 학생과 학교 모두에게 쉽지 않은 문제이다. 보나마나 앞으로 계속 그럴 가능성이 100%이다. 제대로 된 준비를 하자.

독자투고-영화 리뷰

알려지지 않은 연못, 노근리

《작은연못》 이상우 감독, 2010년 박주경 (한국어문 1)

1950년 7월 한국전쟁 중 일어난 노근리 사건을 모른다면 이 영화를 보는 것을 추천한다. 노근리 사건은 60년간 외면 받아온 사건이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미군은 충청북도 영동군 환간면 노근리 철교 밑 터널, 속칭 쌍굴다리 속에 피신하고 있던 한국인 양민 300여 명을 무차별 사격하는 일을 벌인다.

‘작은 연못’은 노근리 주민들의 실화를 소재로 한 최초의 영화이다. 노근리 사건이 발생한지 60년, AP통신 기자들에 의해 사건의 전말이 전 세계에 밝혀진지 11년 만이다. ‘작은 연못’이라는 제목은 김민기의 동명 노래에서 따온 것이다. 이 노래의 ‘어느 맑은 여름날 연못 속의 붕어 두 마리 서로 싸워 한 마리는 물 위에 떠오르고 어린 살이 썩어 들어가 물도 따라 썩어 들어가 연못 속에서 아무 것도 살 수 없게 되었죠’라는 구절에서 한국전쟁을 엿볼 수 있다. 어느 맑은 여름날은 전쟁이 시작된 6월 25일을 뜻하고, 붕어 두 마리는 남한과 북한, 물은 한반도를 의미한다. 아무것도 살 수 없게 된 연못은 전쟁으로 인해 피폐해진 한반도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영화를 만든 이상우 감독은 영화의 제목을 ‘작은 연못’이라고 지었다고 한다.

나는 위와 같은 내용을 전혀 모른 채로 영화를 봤다. 그래서 슬프기만 했다. 내가 겪은 일도 아닌데 뭘 안다고 그렇게 우냐고 한다면 할 말이 없다. 그저 저런 상황에 처한 이들이 안타까웠고, 친인의 죽음을 겪어본 사람으로서 슬펐을 뿐이었다. 슬픔

에 너무 집착된 나머지 영화에 왜 고개가 등장하는지, 제목은 왜 작은 연못인지, 영화에 나오는 노래 가사가 뭔지 생각해볼 새가 없었다. 그래서 영화를 본 날은 가슴이 헛헛해서 하루 종일 기분이 묘했다. 주인공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없었는데도 감정이입되어 눈물을 흘렸던 내가 좀 예민한 것 같긴 하지만, 본지 일주일 넘게 지난 지금도 그 영화를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하다.

노근리 사건이란 것을 모르고 있었으니 수업이 아니었다면 이런 사건이 있다는 사실을 영영 몰랐을지도 모른다. 이 사건은 알려질 필요가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이 사건의 피해자뿐만 아니라 정치권력에 의해 알 권리를 침해당한 또 다른 피해자인 우리를 위해서라도 알려져야 한다. 혹자들은 이 영화가 색깔, 이념이 가득한 영화라고 한다. 그러면서 인민군의 인민재판이나 증공군 소련군의 양민학살을 안 다루냐고 하는데, 이 영화의 취지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다. 이 영화는 은폐되었던 사건을 알리고자 함이지 미군을 욕하고, 북한의 편을 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혹여나 잘못된 판단으로 이 영화를, 사건의 본질을 놓치는 사람이 없길 진심으로 바란다. 그리고 이 영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이러한 일들이 60여년 가까이 잘 알려지지 않은 것에 함께 분노하고 그에 그치지 않고 아직 알려지지 않은 억울한 일들이 더 알려지게 되는 기폭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한줄댓글

“2011 학생회에게 바란다”

이번 한줄댓글 주제는 '2011 학생회에 바라는 점'입니다. 내년 1년동안 학생들을 대표할 학생회에게 바라는 점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항택명 (지정 1)

☞ 디지털 카메라 대여가 가능하도록 하게 해준다면 유휴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안경수(행정 3)


☞ 지킬수 있는 공약을 내세웠으면 합니다

김성은 (의생활 3)

☞ 학생복지라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행동할 줄도 아는 학생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줄댓글’ 관련 게시물은 ‘낙선의 메아리’에 매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주제에 대한 학우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작성자에게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상품 수령시 연락할 수 있도록 댓글 뒤에 학과 및 학년을 꼭 기재해 주세요. 학우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제444호 당첨자는 김성은(의생활 3)학생입니다.



내일을 위한 오늘,
나의 준비는 나를 최고로 만드는 것!

“나의 미래, 멋져야 한다.
나의 삶, 풍요로워야 한다.
나의 행복, 끝없이 펼쳐져야 한다.

내게 부족함은 없는가?
내일을 위해 지금 준비가 필요하다.”

최고를 꿈꾸는 오늘을 당신을
최고로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한성대학교 대학원

한성대학교원은 실용교육 대학원입니다.
실용성이 없는 교육은 이로운 불에 갈아서는 교육일 뿐입니다.
실용에 근거한 논리와 기술만이 당신을 새로운 사의 전문가로
가게 태어나게 합니다.
한성대는 당신이 원하는 미래를 위한 커리큘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성대학교원은 장학혜택이 많은 대학원입니다.
이제 학비고민을 떨치고 학업에 전념하십시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학업에 대한 열정이 식을 수는 없습니다.
자금을 부족하지만 내일이 부자일 당신의 오늘에 한성이 아낌없이 투자하겠습니다.

한성대학교원은 당신의 성공을 돕는 특별한 대학원입니다.
대학의 규모와 역사가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학이 얼마나 큰 영향을 갖고 성공을 지원해나가는 것입니다.
실용에 근거한 논리와 기술만이 당신을 새로운 사의 전문가로
가게 태어나게 합니다.

차별화된 실용교육의 전당 한성 -
당신의 유능한 창조성을 찾아
성공적으로 인큐베이팅해드리겠습니다.

2011학년도 전기 한성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 편입생 모집

| 1. 일반대학원(주간) | 문의전화 (02)760-4271 | 2. 특수대학원(야간) | 문의전화 하단참조 | |
|--|-------------------|--|--|--|
| 박사과정 * 한국어문학과 / 국어학, 국문학, 한국어교육, 문헌정보학 * 영어영문학과 / 영문학, 영문학 * 사학과 /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 * 문헌정보학과 / 문헌정보학 * 경영학과 / 인사, 조직관리, 재무관리, 세무스업관리, 마케팅, 회계학, 경영정보 * 행정학과 / 행정학, 정책학 * 무역학과 / 국제무역실무, 국제경제학, 국제경영학 * 경제·부동산학과 / 경제학, 부동산경제학, 부동산학 * 산업경영공학과 / 경영정보시스템관리, 경영공학, 생산·물류경영, 안전 및 인간공학 * 정보컴퓨터학과 / 멀티미디어공학, 컴퓨터응용, 정보통신공학, 정보시스템공학 * 미디어디자인학과 / 시각·영상커뮤니케이션, 애니메이션·제품디자인, 인텔리엔지니어링 * 지식산업 & 컨설팅학과 / 엔지니어링컨설팅, 컨버전스컨설팅 | | 석사과정 * 한국어문학과 / 한국어문학, 문헌정보학, 한국어교육 * 사학과 /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 * 영어영문학과 / 영문학, 영문학, 영문학 * 문헌정보학과 / 문헌정보학, 기록관리학 * 무역학과 / 국제경제, 국제경영, 국제무역실무 * 경영학과 / 인사, 조직관리, 재무관리, 세무스업관리, 마케팅, 회계학, 경영정보 * 행정학과 / 행정학, 정책학 * 경제학과 / 경제학, 부동산경제학 * 산업경영공학과 / 산업경영공학 * 멀티미디어학과 / 멀티미디어공학 * 컴퓨터공학과 / 컴퓨터공학 * 정보통신공학과 / 정보통신공학 * 정보시스템공학과 / 정보시스템공학 * 기계시스템공학과 / 기계시스템공학, 산업위생공학 * 회계학과 / 회계학, 회계학, 회계학, 회계학, 회계학, 회계학, 회계학, 회계학, 회계학, 회계학 * 무역학과 / 무역경영학, 무역경영학, 무역경영학, 무역경영학, 무역경영학, 무역경영학, 무역경영학, 무역경영학 * 미디어디자인학과 / 시각커뮤니케이션, 애니메이션, 인텔리엔지니어링, 제품디자인, 영상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이론 * 지식산업 & 컨설팅학과 / 인텔리엔지니어링, 인텔리엔지니어링, 인텔리엔지니어링 * 뉴미디어광고홍보학과 / 뉴미디어광고홍보학 | 경영대학원(석사) 경영학과 / 경영관리 호텔관광경영학과 / 호텔경영, 관광경영, 외식경영 디지털미디어디자인학과 / 디지털미디어디자인학 경영대학원(석사) 행정학과 / 행정학, 정책학 사회복지학과 / 사회복지, 노인복지, 실버산업, 사회복지상담 경찰행정학과 / 경찰행정학, 경찰학 중독재활학과 / 치료재활, 중독연구 예술대학원(석사) 패션디자인(복합) / 패션디자인, 패션이커빙, 패션프로모션 (02)760-4097 뷰티학과 / 화장품, 헤어디자인, 뷰티캐주얼, 뷰티수업(02)760-5970, 5740 국립과외대학원(석사) 양보전공학과 / 국제언어, 국방정책, 군사전략 국방홍보학과 / 국방홍보학 지식산업 & 컨설팅학과 / 컨설팅학 (02)760-5957 지식산업 & 컨설팅학과 / 컨설팅학, 컨버전스컨설팅 부동산대학원(석사) / 부동산투자금융학, 부동산경영학 부동산개발관리학과 / 지리정보시스템, 도시개발학 교육대학원(석사) / 교육정책학, 상담심리학, 유아교육학, (02)760-5878 교육교육학과, 역사교육학과, 영어교육학과 | |
| 원사접수 및 발표 * 원사접수 및 접수기간 : 2010. 11. 22(일) ~ 11. 30(화) (토, 공휴일 제외, 단 인터넷 원사접수 시 공휴일도 가능) * 원 수 처 : 본교 대학원 총무과 * 원 형 일 시 : 2010. 12. 4(토), 10:00시 ~ * 원 형 방 법 : 서류전형 / 면접전형, 회화(미디어디자인학과는 포트폴리오 지참) * 합격자 발표 : 2010. 12. 17(금) 14:00시 이후 * 제출 서류 : 본교 홈페이지 참조 http://gs.hansung.ac.kr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대학원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전화로 문의하십시오. | | | | |

상상력 인큐베이터 -
한성대학교 대학원
136-792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271-389 http://gs.hansung.ac.kr
한성대학교원은 서울의 중심 대학으로 비롯해 있어서 시간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취업기획 인터뷰

학교 취업 프로그램 '잘 챙겨 먹기'

오진형(취업·창업지원팀)팀장

"학교에서 지원하는 취업 프로그램을 '잘 챙겨 먹기' 중요하다"는 것이 오진형(취업·창업지원팀)팀장이 생각하는...

나눠서 8개월에서 1년간 매주 토요일마다 정보를 공유하고 취업 과정을 해결하는 프로그램으로 5개 시행되고 있다.

의 정보, 삼성SSA자료, 직무적성검사, 자기소개서 쓰는 법, 면접 테크닉 자료 등이 대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 이를 위해 저학년 때부터 취업준비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면 좋다고 말했다.

이상철 기자 ercast@hansung.ac.kr



기자수첩

고독한 예술가, 그들에게 희망을

한국영화 최초로 천 만관객을 동원했던 '실미도', '태극기휘날리며'를 이어 극장에서 수백 억의 제작비와 관객을 동원하는 영화가 쏟아지고 있다.



도 하다. 얼마 전 1인 프로젝트 밴드인 '달빛요정역전만후름'의 이진원씨가 숨졌다.

인디음악은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는 자립형 밴드'로 기존의 상업적인 대중음악과는 달리, 독립된 자본으로 음악을 꾸려나가는 밴드들을 일컫는데, 보다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연주한다.

이처럼 이들은 자신의 관점에서 무언가를 창조하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고독하기도 하다. 그 고독함을 안고 상업적 성공보다는 자신의 예술 안에 스스로의 인생관과 의지를 담아내려고 노력한다.

이예진 기자 adory11@hansung.ac.kr

주간식단표

2010년 11월 15일(월요일) ~ 11월 19일(금요일)

Table with 6 columns: 날짜, 월, 화, 수, 목, 금. Rows include breakfast, lunch, and dinner items for each day.

위 식단은 식재 공급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희 학생 식당에서는 돼지고기, 닭고기, 김치: 국내산 / 쇠고기: 호주산 / 닭정육: 미국산(닭김치비용)을 사용합니다.

Grid table with 10 numbered cells (1-10) for a quiz or survey.

- 1 그 지리에 없는 사람, 2 반대 방향으로 거슬러 나가기, 3 남에게 귀엽게 보이는 태도, 4 공연을 앞두고 실체처럼 하는 연습, 5 고려 시대에, 최고의 국립 교육 기관, 6 잘못을 지적하여 비난함, 7 때릴 때에 쓰는 가는 나뭇가지, 8 시간상이나 손사정의 면 끝, 9 옮겨 실려지고 기온 어떤 식물, 10 배나 몇몇 위에 널빤지를 깔아서 만든 다리, 11 자기의 뜻을 함주어 밀함, 12 한 나라의 구성원이 되는 자격, 13 사람이나 물체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 14 품은 생각을 터놓고 밀함, 15 분에 넘치는 듯싶어 매우 고맙게 여기는 모양, 16 전령이나 배관, 17 사람을 부르는 신호로 울리는 종

정답지에 한해 추첨하여 문화상품권(5천원)을 드립니다. 지난호 정답지는 연락 후에 신문사로 와서 상품권을 받아주세요. 문의: 한성대신문사(02-760-4186)

학과(학년): 인문학

'너 전지현이랑 잘래?' 같은 커피 만들고 파

전지현(한국어문 06) 졸업생



광고는 아이디어의 전쟁이다. 이에 광고인들은 상품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동시에 소비자에게 강하게 어필하기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있다.

에 대해 그는 "한국야쿠르트 산타페 공모전에서는 동상을 받았다. 그 부상으로 수상자와 마케팅 캠프를 가 신났지만 캠프를 통하여 다른 팀에게 자극을 많이 받았다"며 "공모전에 생각이 있으면 이 공모전에 꼭 참여해보길" 추천했다.

그녀는 "졸업 후 나의 모습에 대한 계획이 명확하지 않아 도피성 어학연수를 떠나려고도 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인턴을 해보는 것이 어학연수보다 더 나은 것 같아 광고회사에 인턴을 지원을 했고 운이 좋게도 한번에 붙었다"며 광고일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었던 기회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회사에 자기소개서를 낼 때 나를 긍정하게 만들어 면접까지만이라도 가져라"는 생각을 했다"며 "자기소개서의 컨셉은 '너 전지현이랑 잘래?'였다"고 말했다.

그녀는 "대학 시절 때의 놀았던 추억이 지금 아이디어를 낼 때 무궁무진한 소재가 된다"며 "많이 놀아라. 하지만 의미 없는 게 노는 것이 아니라 추억을 만들고 지금만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놀아라"고 말했다.

곽소영 기자 ksyoungh@hansung.ac.kr

학교 다니면서 다양한 경험 쌓으세요

이호(경영 4)학생



졸업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의 가장 큰 소망 중 하나는 졸업 전에 적성에 맞는 직장을 구하는 것이 아닐까. 이 호(경영 4)학생은 현재 세스코(CESCO)영업부에 최종 합격 후, 영업사원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고 있다.

졸업 전에 취직을 할 수 있었던 요인에 대해 그는 "다양한 직무 인턴 경험과 학교 내 취업 지원 시스템의 활용"이라고 설명했다.

취업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그는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이지만, 본인 스스로 무슨 일에 흥미를 느끼고 어떤 일을 잘 하는지 그리고 미래에 어떤 일이 비전이 있을지도 찾아야 한다. 경험을 통해, 책을 통해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를 반드시 본인 스스로 찾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다른 경험도 해보고 싶어 동양증권에서도 아르바이트를 했고 카이스트

경영 대학원에서 1년 동안 사무 보조 등의 일도 했다"고 말했다. "4학년 때는 어학점수를 끌어올리고 학교 내의 취업관련 행사를 적극적으로 이용했다"며 취업준비과정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그는 앞으로의 목표에 대해 "아직은 연수를 받는 중이라 일단 앞으로 3개월 동안 이 일을 잘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체험하고 판단해 볼 예정이다. 직무 목표는 세스코 회사에서 맡아 처리하는 시설물들이 청결해서 입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건강이 좋아지고 매출도 상승하여 시장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점점 커지는 것이다"라고 포부를 전했다.

그는 후배들에게 마지막으로 "찾아보면 학교에서 외부 강사를 초청한다든지 그룹 컨설팅을 통해 구직 시장 현황에 대해 알려주고 어떻게 전략을 짤 지 도움을 주는 시스템들이 많이 있다. 나 역시 이러한 시스템들을 활용해 많은 정보를 얻었고 그 결과 졸업하기도 전에 취직을 할 수 있었다"며 학교 내부의 취업 지원 시스템을 잘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이경문 기자 kkr88@hansung.ac.kr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깨닫자!

김형규(매디 00) 졸업생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될까. 한 온라인 취업포털사이트가 조사한, 최근 1년간의 이직률은 평균 24.9%로 나타났다.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면접에 대해 "첫인상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 자신의 특별한 장점을 잘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눈빛이나 태도에서는 임하려는 자세 같은 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첫인상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라고 전했다.

그는 "요즘은 학생들이 너무 1학년 때부터 학점관리에만 열을 쏟는다. 학점을 아예 무시할 수는 없지만, 학점외에 자기계발적인 일을 했으면 좋겠다. 또한 선배들한테 졸업과 취업에 대한 조언을 받고 익히면서, 학생신분으로서만 허락되는 일, '늘기'를 적극적으로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취업 준비 과정 중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을 깨우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학생들이 직업에 막연한 생각만을 가지고 있다. 전공적인 것뿐만 인생적인 부분부터 조언을 받는 것도 좋다. 그 밑에 너무 휩쓸릴 필요는 없지만, 이왕이면 영리하게 객관적인 정보는 받아들이며 준비하면 좋겠다"며 가장 고려해야 할 것으로 주위 사람들의 조언을 꼽았다.

그는 "조급해하지 말고 차근차근 준비해 원하는 곳에 들어가면 좋겠다. 여유를 가지고 준비하다보면 자신의 이상과도 맞는 곳을 찾게 될 것이다"라고 졸업을 앞둔 후배들에게 말을 전했다.

공유화 기자 gong0930@hansung.ac.kr

학문, 사랑, 학우 중 한 개라도 이루어라

백승훈(컴공 94) 졸업생



KT 컨버전스WIBRO본부 Biz컨버전스 사업담당에서 모바일 러닝 서비스(Mobile Learning Service)를 담당하고 있는 백승훈(컴공 94)졸업생은 기업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높이는 기업형 솔루션 프로그램을 10년 동안 개발해 왔다.

그는 "컴퓨터 공학의 이론과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주특기를 살려 새로운 통신 서비스를 개발하는 꿈을 펼치기 위해 KT에 입사했다"고 말했다.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창조해 내는 것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대학시절 여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아르바이트를 했다. 3학년 때는, 한국어 조사품사의 분포 분석을 위한 통계 소프트웨어 개발을 했고, 4학년 방학 중에는 벤처회사 이송정보통신에서 서비스 개발에 참여했다. 또 4학년 마지막 학기에는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 외국인 GIS(지리정보시스템)내 DB에서 적절한 데이터를 찾기 위한 인공지능연진도구를 개발하기도 했다.

백승훈 졸업생은 "대학시절 전공에만 관심을 두지 않았다. 회사생활을 하려면 기본적인 소양이 필요하기에 경영학, 경제학, 행정학 강의도 들었다. 지금도 회사 생활하는 데 상경계 과목들이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후배들에게 "동기들끼리 작은 소모임을 만들어 입사하고자 하는 회사의 시럽정보를 공유하고 취업한 선배로부터 취업정보를 얻는 것을 권유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는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의 사전 조사를 하여 기사나 칼럼 등을 세세히 숙지하고 있어야 하고, 다양한 경험보다는 꼭 필요한 내용을 주제로 하여 결과물을 구체적인 수치로 표현하면 신뢰감을 높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면접에서는 "1분 자기소개를 준비하여 자기 가치관, 포부 등을 자신 있게 설명하고 마지막 종언멘트를 준비하라. 또한 자신의 의견만을 너무 강하게 주장하지 말고 면접관의 의견을 경청해주고 존중하면서 적절하게 타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면접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눅 들지 않는 것"이라며 "대기업 일수록 지원자를 배려하는 분위기 속에서 면접을 진행하므로 웃음꽃이 피어날 수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대학생이 학교에서 얻을 수 있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이는 학문, 사랑, 학우이다. 이 세 가지 중 한 가지만이라도 제대로 얻었다면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이룬 것이다"며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기에 후회 없는 대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보현 기자 annymj17@hansung.ac.kr

독립영화, 조금 특별한 메시지를 던지다



▲ 왼쪽부터 영화 '피업전야', '워낭소리', '똥파리'의 한 장면이다.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솔직하게 전할 수 있다는 것이 매력

우리가 영화를 보며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주인공 누군가가 나의 삶을 대변하고 있어 고개를 끄덕거리며 공감을 하거나 내가 가보고 싶었던 길을 대신 가 주는 것에 대해 그 길을 가보아지 하는 다짐을 하기도 한다. 세상에는 많은 영화들이 존재한다. 진정으로 우리의 지친 삶을 위로하고 공감을 끌어내는 영화는 어떤 영화일까? 500만 관객을 동원하는 영화들이 쏟아지고 100억원을 넘나드는 제작비로 수백 개의 상업영화를 쏟아내는 시대에, 커다란 꿈이나 해피엔딩을 그리고 화려한 그래픽과 톱스타 주연의 영화는 현실을 잠시 잊고 영화 내용에 빠져들게 만든다. 일제히 똑같은 간판을 걸었다가 내리는 영화관에 걸었다면 잠시 눈길을 돌려보자. 그 가운데 우리의 삶과 현실을 직접 담아내며 마음 속에 무언가의 메시지를 던지는 독립영화가 있다.

독립영화는 일반적인 상업영화에 비해 저예산, 소규모로 제작되며 감독이 자신의 의

도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또한 자본이라는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다. 이는 대중의 요구를 받아들여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극장가의 상업영화와는 현저한 차별점을 가진다. 이자연(한국독립영화협회 사무국장)은 "독립영화는 관객이 보았을 때 감독이 생각하는 것을 담아낼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극장에서 상영되는 상업영화는 투자자들의 자본을 받아 만드는 것으로 소비자를 의식하기 때문에 관객이 원하는 영화를 만든다"고 말했다.

독립영화는 1970년대 초중반부터 대학가를 중심으로 영화를 통해 사회적 발언을 하는 움직임으로부터 그 시초를 찾을 수 있다. 절망적인 유신 독재 아래에서 새로운 영화를 꿈꾸는 청년들에게 비상구의 역할을 했던 것이 가장 먼저 결성된 '영상연구회'였다. 이러한 영화운동은 대학가를 넘어 사회운동으로 이어지면서 1982년, 최초로 독립영화단체인 '서울영화집단'이 구성되면서 충무로영화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변방에서 중심으로' (서울영상집단, 시각과 언어)에서는 "광주항쟁 당시 학생운동의 주도세력들은 민중을 변혁운동의 주체로 설정하고 노동현장으로의 존재 이전을 서서히 준비하고 있었다. 이러한 시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대학영화계의 성원들 사이에서는 소박하지만 영화를 운동의 일환으로 파악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후 독립영화 제작이 활발해졌고, 대학 강당이나 소극장, 노동현장 등에서 상영회가 잇따랐다. 당시의 대표적인 작품은 '피업전야'와 '상계동 율리피'인데, 이 작품들은 피폐한 현실을 사실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신문과 방송이 하지 못하는 군사정권과 언론 탄압에 반(反)하는 이야기가 담겨있다. 이러한 독립영화들은 점차적으로 감독 개인의 의도가 내포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로 확산되어 왔다. 최근에 흥행한 작품인 '워낭소리'는 판소리와 마흔 살 소의 끈끈한 우정을 감동적으로 그려냈고, '똥파리'는 남성들은 폭력의 피해자이면서 가해자라는 것을 파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지난 9월, 한국영상자료원 독립영화상영관에서 상영했던 '애니멀타운'이라는 작품은 도시가 가진 트라우마를 사실적으로 그려낸다. 상영회에서 전규환 감독은 "사실적으로 묘사하기 위해 음악을 미포함시키고 과정엔 연기는 편집했다"고 소개하며 "모든 매스컴에 학습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억지반응이 아닌 진실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비록 발

품을 팔더라도 관객들에게 내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독립영화의 매력이다"라고 말했다.

감독들은 작품에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담아내는 대신 많은 것을 포기하고 있다. 상당수의 독립영화 감독들은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과 영화적 태도를 고집스럽게 밀어붙이려는 경향이 있는 대신에 자본과 시스템에서 벗어나 있다. 이러한 독립영화 제작비 마련의 어려움에 대해 이자연 사무국장은 "독립영화는 투자가 아닌 지원을 받아서 제작한다. 지원제도가 늘어나 제작환경이 안정화되어 독립예술영화도 순수 문학처럼 하나의 예술로 자리잡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떠들썩한 극장에서 '볼 만한 영화'는 다 봤다면, 가끔은 드문드문 객석이 빈 객영화관에서 커피를 한 손에 쥐고 '조금 특별한' 영화를 보는 것이 어떨까. 당신에게 강한 여운을 전해줄 것이다.

독립영화를 만날 수 있는 곳은 '한국영상자료원 시네마테크(KOFA)', '인디스페이스', '인디시네' 등이며 12월 9일부터 11일 간 제36회 서울독립영화제가 열린다.

이예진 기자 edary11@hansung.ac.kr

보고 맛들고 즐기는 '신당창작아케이드'



▲ 신당창작아케이드를 방문하면 작가들의 공방과 작품들을 판매하는 곳도 둘러 볼 수 있다.

무언가 만들어보고 싶지만 손재주가 없어 좌절하는 당신, 연인과 데이트 장소를 찾느라 머리를 싸매고 있는 당신에게 예술창작공간 신당창작 아케이드를 소개한다. 신당창작 아케이드는 중앙시장 지하에 있는 빈 점포들을 리모델링해 작가 40여명이 창작활동을 하며 재능기부라는 봉사의 형식으로 매주 토요일, 시민들에게 공예를 가르치는 곳이다.

이곳에서 배울 수 있는 공예는 칠공예, 도자기, 칠보, 금속, 부아트, 일러스트, 한지 등으로 다양하다. 체험할 수 있는 무료프로그램에는 두 가지가 있다. '무료체험 1'은 아이부터 노인까지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는 체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무료체험2'는 15세 이상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무료체험'을 보다 심화한 공예수업이다.

신당동 창작아케이드는 기존의 낙후된 상

가를 현대적인 문화공간으로 변화시킨 좋은 예다. 김효진 신당아케이드 홍보담당은 "IMF로 인해 상권이 약화돼 빈 점포가 50개가 되면서, 활력을 잃어버린 상가가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으로 변해버렸다. 이런 상가가 변화한 것은 서울시의 컷쳐노믹스 사업의 일환으로 신진작가들에게 비어있는 점포를 무료로 제공하고, 작가들은 재능기부를 통해서 기존의 상점들의 노후된 인테리어를 바꾸면 서부터이다"고 말했다.

신당창작 아케이드 주변은 작가들의 미술 작업으로 기존상점의 인테리어가 눈에 띄게 바뀌었으며 작가의 작업장과 공예작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다. 또한 자신이 만든 공예품을 공짜로 가져갈 수 있다는 점도 연인들에게 크게 인기를 끄는 비결이기도 하다. 매주 토요일마다 열리는 아케이드의 도시락 아트페스티벌에서는 무료로 무알콜 칵테일도 제공한다.

북아트 무료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 신당 공예센터를 찾은 전찬영(14세) 학생은 "직접 손으로 공예를 할 것이라 생각하

지도 못했다"며 "공예품을 만들고 나서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낀다. 지역의 아동센터 친구들이 자주 여기서 공예를 배우고 가는데 다들 이 시간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작가들의 재능기부 봉사로 새롭게 태어난 신당창작아케이드는 중앙시장 지하 아케이드에 자리 잡고 있으며 시민들의 창작활동을 돕고 연인들에게는 좋은 데이트 장소가 되고 있다. 무료체험 프로그램은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한다.

이상현 기자 ercast@hansung.ac.kr

Talk/Talk! cinema '피쉬 스토리'

잊혀진 노래 한 곡이 지구를 구한다고?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나리투의 '바벨'을 보면, 모로코 사막에서 터진 한밤의 '총성'으로 인해 멕시코, 미국, 일본 등 전혀 다른 공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연쇄적으로 엮힌다. 에쉬턴 커처의 나비효과에서는 과거의 '선

택' 하나가 주인공은 물론, 그를 둘러싼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킨다. 그리고 이 영화, 피쉬 스토리에서도 무언가에 의해 다른 시대, 다른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묶인다. 그 무언가는 바로 '음악'. '피쉬 스토리'는 음악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더 나아가 세상을 구할 수 있다고 말하는 다소 황당하지만, 마법과도 같은 영화다.

지구가 해성과 곧 충돌한다. 이 순간 당신은 무얼 하겠는가. 적어도 '피쉬 스토리'의 인물들은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말한 스피노자의 본심이 될 확률이 크다. 지구의 마지막 순간에도 어느 레코드 가게는 버젓이 영업 중이다. 음반을 사겠다고 찾아온 손님도 있다. 이들은 한가로이 무명 밴드 게키린의 음악을 듣는다. 곡명은 '피쉬 스토리'. "나의 고독이 들

고기라면 그 거대함과 새나움에 고래조차 달아나겠지. 나는 죽지 않아, 죽지 않아"라는 묘한 가사가 공명할 때, 영화는 본격적인 시간여행, 혹은 퍼즐 맞추기를 시작한다.

지구 멸망 5시간을 앞둔 2012년에서 문을 연 영화는 1975년, 1982년, 2009년을 오가며 '피쉬 스토리'를 거쳐 간 사람들의 에피소드를 나열한다. 밴드 게키린이 '피쉬 스토리'를 만든 후 해체되고(1975년), 7년 후 그 노래를 들은 소심한 청년이 성폭력 직전의 여성을 위기에 건지낸다(1982년). 그리고 이것을 인연으로 결혼한 청년과 여성이 낳은 아들은 테러리스트에게 인질로 잡힌 여고생을 구한다(2009년). 지구 멸망과 전혀 상관없이 보이는 이들의 이야기가 완성되는 것은 2012년. 이들이 구한 여고생이 해성 충돌 시간을 계산해 지구를 구원하는 미래의 천재 수학자임이 밝

혀지는 순간이다. 이처럼 파편적이고 소소한 각각의 에피소드가 퍼즐조각처럼 완성돼 가는 과정이 재기발랄하기 그지없다. 별 볼일 없었던 노래 한 곡이 인간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인류를 구원한다는 설정 역시 기발하면서도 감동적이다.

결국 '피쉬 스토리'는 인간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 결코 거대한 게 아니라고 말하는 영화다. 한 부분만 놓고 보면 보잘 것 없는 점에 불과하지만, 그 점에 존재한 의미들이 모여 선을 만들고, 그것이 또 이어져 삶을 변화시키는 에너지가 된다. 그 누가 짐작 했겠는가. 지구를 구할 기적의 씨앗이, 비틀즈도 아니고 엘비스 프레슬리도 아닌, 무명 록 밴드 게키린의 음악이 될 줄.

글· 정사우 (무비스트 기자)



역사를 담은 자전거, 맛있는 꽃감을 만날 수 있는 도시 '상주'

▲ 황선문박물관에서 내려다본 소나무마을 정원에 가을이 짙게 물들고 있다.

경북 상주시는 쌀, 누에고치, 꽃감이 유명해서 삼백(三白)의 고장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전국 제일의 자전거도시로 명성이 높다. 상주시는 8만5천대가 넘는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으며 1인당 0.6대 꼴로 자전거 보급률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인연으로 전국 유일의 자전거 박물관이 상주 땅에 들어섰다. 자전거박물관을 품은 꽃감마을 산책도 즐겁고 상주박물관과 태양에너지전 시흥보관, 경천대 등도 상주의 관광 명소이다.

있어 다시금 발길을 붙잡는다. 남장사 철불좌상은 병란이나 심한 가뭄이 닥칠 때는 땀을 흘리는 형상이 있다고 옛 상주군 지인 '상산지'에 기록되어 있다.

자전거의 발달사, 우리나라 자전거의 유래, 우리나라 최초의 자전거 경기 선수, 이색자전거의 종류, 자전거운동의 효과 등을 골고루 배울 수 있는 곳이 국내 최초의 자전거 전문 박물관인 상주자전거박물관이다.

상주시 남장동은 꽃감마을로 유명한 마을이다. 상주자전거박물관에서부터 남장사에 이르기까지 도로 양편으로 갈나무가 즐비하다. 이 마을 사람들은 매년 가을 11월 중이던 꽃감만들기 작업을 펼친다. 상주 꽃감은 전국 꽃감 생산량의 60%를 차지한다. 12월 중순 이후에는 그해에만 감으로 만든 햇감감을 맛볼 수 있다.

자전거의 역사를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상주자전거박물관은 2002년 10월 26일 문을 열었다. 실내로 들어서서 왼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제일 먼저 '초기자전거' 코너를 만나게 된다. 이어서 사육자전거 등 이색적인 자전거를 소개하는 전시물을 보게 된다. 이를 코너에서 뒤로 돌아서면 경기용 자전거, 산악자전거, 묘기자전거 등이 벽면과 바닥에 전시되어 있다.

남장동 마을 사람들은 "상주는 갈나무가 자라기에 적합한 연평균 기온이 섭씨 12도 ~ 14도를 유지하고 토양도 사양토 또는 식양토라서 당도 높은 감이 수확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경천대는 낙동강 구간의 중심에 있는 경승지로 하늘이 그 빼어난 경치를 직접 만들었다 하여 일명 자연대라고도 한다. 깎아지른 절벽 바위 위에 서면 낙동강의 도도한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다. 경천대 바로 옆 강안 절벽지대에는 조선조 선비였던 우담 채득기선생이 공부하던 무우정이라는 정자가 낙동강 물소리를 빗살아 홀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꽃감마을 길을 따라 계속해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남장사에 닿는다. 남장사 사적기에 따르면 이 절은 830년 진감국사가 당나라에서 돌아오는 길에 노악산에 머물면서 신라 흥덕왕 7년(832) 무량전을 지은 이후 대규모로 번창하게 되었다고 한다.

대표소에서 자그마한 언덕 하나를 넘어가면 경천대에 이른다. 1987년 국민관광지로 지정된 이후 조경공사가 잘 이뤄져 산책코스가 훌륭하다. 경천대 아래는 맑디 맑은 웅소가 있고 그 옆에는 10리 길이의 모래사장이 펼쳐져 절경의 맛을 더욱 깊게 만든다.

일주문을 지나면 극락보전 영역이 나오고 그 뒤 계단을 오르면 보광전 영역이 이어진다. 원래 남장사의 본전이었던 보광전 앞에는 낙엽지는 계절 속에서도 푸르름을 잃지 않는 파초 두 그루가 싱싱하게 자라고 있어 눈길을 끈다. 또 보광전에 안치된 철조비로자나불상(보물 제990호) 위에는 일반적 행화가 아닌 목각행화가

(여행정보)
상주시청 문화관광과 054-537-7211
상주박물관 054-536-6160
글· 사진 유연대 (여행작가)'대한민국 여행사' 기자)



사진이야기

학교 뒤쪽에서 창신역 방향으로 내려가는 미울버스 03번 안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앞에 앉아 계신 할아버지의 흑백의 대조를 이루는 머리카락과 정적인 버스안의 모습이 독특한 느낌을 자아내지 않나요?

김진광 (정동 1)